

광주지법, 중·고생 모의재판 진로멘토링 행사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장용기)은 1일 광주지 교육청과 공동으로 '2025 중·고등학교 모의재판 진로멘토링 실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행사는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지역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기본 법률 교육을 이수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광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재판

판을 실연해 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광주지법은 각 학생들이 제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심사를 거쳐 광주진흥고, 금호고, 대광여고, 문성고, 보문고 등 5개교를 재판 실연 팀으로 선정해 모의 재판을 진행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립목포대, 말레이시아서 이주민 건강증진 행사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2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내팔 대사관과 비거주 내팔인 협회와 함께 내팔 이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번 방문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건간호 실천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국립목포대 간호학과와 국제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 산업현장 안전 및 건강 관리, 정신건강 지원, 기초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문정민 조선대 교수

미술대학 첫 여성 학장 취임



문정민(사진) 조선대학교 실내디자인 전공 교수가 최근 미술대학 제21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1946년 조선대 미술대학이 개교한 이래 첫 여성 학장이다.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실내디자인 전공으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은 문 교수는 미국 뉴욕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환경대학원에서 실내건축조명 전공으로 미술학 석사학위, 국립경상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 조선대에 부임한 이래 2013년 인문사회계열 최고 연구업적 교수에게 주어지는 백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주거학회에서 학술상, 우수논문상 등을 받았다.

문 교수는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KOSDA) 회장, (사)한국주거학회(KHA) 회장, 문화예술산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교수는 "80년 전통을 지닌 미술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미술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며 "K-디지털 혁명시대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창의적 가치와 지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대학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동강대, 중장기 발전계획·라이즈 중간 성과 공유



동강대학교가 광주 특화 산업과 연계한 'RISE' 사업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구성원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동강대 RISE사업단은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여수에서 '라이즈 중간 성과 공유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워크숍'을 진행했다. 동강대는 교육부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2025년 RISE

사업'에서 11개 단위과제를 신청해 모든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워크숍은 'RISE' 사업의 구성원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강대는 이틀간 산학연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사업 운영을 위한 전략적 기틀 마련에 머리를 맞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5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워크숍



광주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8일 광주지역 5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광주시청, 각 구청 관계자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 시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간 정보공유와 지

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서동주 센터장은 "광주지역 센터 간 협업을 선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민 기자 kdi@

광주교통공사

'열차 안전 운행의 날' 캠페인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시 서구 양동시정역에서 '열차 안전 운행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한글용사 아이야(재)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	10 동행(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재)	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45 안녕! 틴틴링(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뉴스특보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45 위시켓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K-히어로 트웰브 55 불평해도 괜찮아 7(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뽀뽀보 좋아좋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보석에네 건강 수다
2	00 KBS 뉴스 15 팔도방송 스페셜 30 국회 인사청문회 원민경 여거부 장관 후보자			00 뉴스브리핑 55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Why?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일꾼의 탄생 시즌 2	50 여왕의 집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긴머리 휘날리며	00 손석희의 질문들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55 한탕 프로젝트 마이 팀(재)
11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0 토요일 미니시리즈 트웰브(재)		
12	00 KBS 중계식 <소울 첼로 앙상블 정기연주회>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스튜디오 K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15 시사타미! 따따부따(재) 45 경이로운 도전(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00 특별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1부	17:40 티시태시와 춤추고 노래해요!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디버드 봉(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건축탐구 - 집
(아프리카의 유혹 -이것이 야생이다, 나미비아)	12:10 특별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	19:20 고향민국
07:0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45 EBS AI 단편 극장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엄마 까투리	14:20 특별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3부	<하늘에 더 가까이, 페루 잉카의 마지막 다리, 케스와차카>
07:45 레인보우 버블잼	15:10 고향민국	21:35 한국기행
08:00 덩동덩동덩	15:40 마사와 곰	<슬기로운 강원 생활 3부 나는 해녀♥나는 선장>
08:20 수상한 방송국	15:55 블랙스	21: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08:50 샤샤 앤 마틸로	16:10 덩동덩동덩	22:45 PD로그
09:20 영유아 클래스e(재)	16:30 수상한 방송국(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50 오구오구 내 새끼	17:00 페퍼 피그	
	17:10 티시태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일 (음 7월 12일 乙亥)

<p>36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48년생 친화력과 자연스러움이 절실할 필요할 때이다. 60년생 엇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가 어렵다. 72년생 방법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크다. 84년생 단일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96년생 유동적이나 만큼 매사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0, 81</p>	<p>42년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번득이는 지혜도 솟아날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54년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다. 66년생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78년생 새롭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90년생 버리지 않으면 폐해가 속출하게 되어있다. 02년생 이미 틀어진지 오래되었다. 행운의 숫자 : 16, 97</p>
<p>37년생 구우일모의 기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49년생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리라. 61년생 고집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핵심을 살필 수 없을 것이다. 73년생 잘 알아보고 싸이만 부작용이 없다. 85년생 많은 만큼수록 유익할 것이니 잘 챙겨라. 97년생 우연히 현장의 상황을 꼭꼭 지켜라. 행운의 숫자 : 08, 94</p>	<p>43년생 예상 못했던 상황이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라. 55년생 기간이 지난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하면 아니 된다. 67년생 판도를 설계만 본다면 많은 취약점을 간과하게 되니라. 79년생 결과 속이 딱 한 모음이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91년생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 03년생 대중 넘길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8, 61</p>
<p>38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0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뜻을 깨달을 것이다. 62년생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행동한다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74년생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으리라. 86년생 안간힘을 다하게 되는 막바지에 이르렀으니라. 98년생 전체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47, 98</p>	<p>44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56년생 지금은 절대로 나서지 말고 잠자코 있어야 할 지경이다. 68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80년생 조용한 후수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92년생 인식했다면 발생하기 전에 피하는 것이 낫다. 04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75</p>
<p>39년생 선행 조건부터 확실히 짚어야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51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63년생 마음을 들뜨게 하는 즐거움 일이 보인다. 75년생 탄력적이라면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87년생 불협화음이 보인다면 아집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99년생 긍정적인 희소식이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60</p>	<p>45년생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함이 정확할 것이다. 57년생 지난날에 쌓아 온 성과가 빛을 보는 날이다. 69년생 옆에서가 아니라 변통시키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81년생 특별한 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으리라. 93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05년생 기본에 충실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5, 59</p>
<p>40년생 경사가 나서 떠들썩한 마당이로다. 5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64년생 상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의미가 있느니라. 76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88년생 반드시 준비하여야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00년생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많은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73</p>	<p>46년생 당장 마음에 끌린다고 해서 실행하지 말고 뒷감당 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임하라. 58년생 시급하다. 70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행한 것으로 자기 위안해도 된다. 82년생 본격적인 판세라 할만하니 앞뒤 가리지 말고 주마가편해야 한다. 94년생 뜻밖으로 이종 또는 삼종의 행운이 따르리라. 06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8, 53</p>
<p>41년생 새로운 인연은 길사를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리라. 53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65년생 신중함보다 과감한 행동력이 절실한 때가 되었다. 77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89년생 술선수범한다면 궁극적으로 파르게 되어 있느니라. 01년생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0, 69</p>	<p>47년생 상호적이니만큼 일방만을 탓할 일이 아님을 알라. 59년생 중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특별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71년생 일단 정지한 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낫겠다. 83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95년생 주체성과 특장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07년생 균형 잃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43, 84</p>